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유지연*

대전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Career Commitment of Senior Nursing Students

Ji-Yeon Yoo*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 4학년 21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statistics로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은 전공선택동기($r=.41, p<.001$) 및 전공만족도($r=.35,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선택동기가 간호경력몰입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39.4%였다. 본 연구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 영향요인을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을 위한 긍정적인 간호경력몰입 형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키워드 : 간호, 학생,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경력몰입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on the nursing career commitment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15 nursing students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ver. 29.0.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otive for major selection($r=.41, p<.001$), major satisfaction($r=.35, p<.001$), and nursing career commitment. The predictor on nursing career commitment was motive for major selection, explaining 39.4% ($F=18.40, p<.001$) of the variance. I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motive for major selection has the greatest impact on nursing career commitment, it is necessary to seek educational new programs and curricula to develop nursing student's nursing career commitment.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otive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Career commit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경력몰입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개인의 의지 및 동기부여 수준을 의미하며[1] 개인 차원으로는 일생을 통해 경력을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자 조직차원에서는 최적의 이직률을 유지해야 하기에 인적 자원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2].

경력몰입은 병원인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적용된다[3]. 이는 간호사 개인의 경력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간호사들의 태도와 행동 예측 및 효과적인 조직관리에 중요하기 때문이다[4]. 간호경력몰입은 간호사가 간호직을 평생 추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정도 혹은 의도로 정의된다[5]. 선행 연구에서 간호경력몰입은 간호사의 경력변경의도와 경력단절 간호사의 임상 재취업 의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6, 7].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사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경력몰입 형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학생의 전공선택은 진로결정 과정의 첫번째 단계이자 개인의 삶과 가치관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발달과업[8]이므로 학생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공선택은 원활한 대학생 및 졸업 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전공선택동기는 개인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 등과 같은 개인적 동기와 전공의 인기나 취업 전망, 가족과 지인의 권유 등과 같은 사회적 동기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된다[10].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강화는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 졸업 후 명확한 직업적 동기를 갖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본인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11]를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12],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입학한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13] 전공만족도 향상은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 관련 연구는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간호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할 만족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자아존중감, 정체성, 전문직관, 학업 효능감 등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15,16]. 그러나 그간의 연구에서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와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간호경력몰입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 저하로 인한 전공 부적응은 휴학, 자퇴, 전과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17] 졸업 후 간호사로서 업무부적응이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 [18]. 간호사의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았고 [19, 20], 간호경력몰입이 이직의도의 매개변수로 분석되었다[20]. Blau[21]는 경력몰입의 측정은 개인이 전문직업의 구성원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간호경력몰입도구를 개발한 Gardner[22]는 간호경력몰입이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예비 간호사인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경력몰입과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요인이 간호경력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경력몰입 형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등이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으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경력몰입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가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 간의 관계와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23]에 근거하여 G*power 3.1.9.7프로그램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2개를 포함한 예측변수 11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표본 수는 178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인 215명은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에 적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는 정보연[24]의 연구도구를 기초로 한 예정[10]이 개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문항 중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개인적 동기 4문항과 사회적 동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동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예정의 연구[10]의 Cronbach's α 는 개인적 동기 .85, 사회적 동기 .62이었으며, 본 연구는 개인적 동기 .84, 사회적 동기 .57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김계현·하혜숙[11]이 수정·보완한 27문항 중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한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측정하는 인식만족 6문항, 전공교과목 내용 및 교수-학생간의 관계·교과만족 6문항,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계현·하혜숙의 연구[11]의 Cronbach's α 는 인식만족 .89, 관계만족 .76, 교과만족 .73이었고, 본 연구는

인식만족 .81, 관계·교과만족 .87, 일반만족 .91이었다.

2.3.3 간호경력몰입

간호경력몰입은 Blau[2]가 개발하고, 문인오[4]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8문항,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경력몰입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문인오의 연구[4]는 .88이었고, 본 연구는 .85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041490-20210527-HR-005)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D광역시 소재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COVID-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강의 종료 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안내하며 온라인 설문 링크 주소를 공지하였다. 온라인 설문링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목적,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익명처리, 연구 철회, 연구자 연락처에 대한 안내문을 탑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알립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온라인 설문지 하단의 연구 참여 동의에 자발적으로 체크한 뒤에 설문을 시작할 수 있어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고, 설문 후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미기입 항목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1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 정도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경력몰입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학생이 178명(82.8%), 남학생이 37명(17.2%)이었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145명(67.4%)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 125명(58.2%), 보통 71명(33.0%), 불만족 19명(8.8%) 순이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111명(51.6%), 보통 89명(41.4%), 불만족 15명(7.0%) 순이었다. 간호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학생이

158명(73.5%)이었고, 평균성적이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141명(65.6%)이었다. 대인관계 정도가 좋음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183명(85.1%)이었고, 학과 생활 중 어려운 점은 전공수업 156명(72.6%), 임상실습 38명(17.7%), 학우관계 14명(6.5%), 기타 7명(3.2%) 순이었다. 졸업 후 희망 진로는 병원 취업 173명(80.5%), 간호직 공무원 19명(8.8%), 산업간호사 8명(3.7%), 기타 7명(3.3%) 보건교사 6명(2.8%), 보건소 2명(0.9%)순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5)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78(82.8)
	Male	37(17.2)
Religion	Christian	37(17.2)
	Catholic	18(8.5)
	Buddhism	13(6.0)
	None	145(67.4)
	Others	2(0.9)
Satisfaction in Campus-life	Satisfied	125(58.2)
	Moderate	71(33.0)
	Dissatisfied	19(8.8)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11(51.6)
	Moderate	89(41.4)
	Dissatisfied	15(7.0)
Attitude toward nursing science	Positive	158(73.5)
	Moderate	46(21.4)
	Negative	11(5.1)
Grade point average	Upper	36(16.7)
	Middle	141(65.6)
	Lower	38(17.7)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71(33.0)
	Good	112(52.1)
	Moderate	32(14.9)
Difficulties in nursing studies	Curriculum	156(72.6)
	Clinical practice	38(17.7)
	Relationship with peer	14(6.5)
	Others	7(3.2)
A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Hospital nurse	173(80.5)
	Public service personnel	19(8.8)
	Occupational health nurse	8(3.7)
	Others	7(3.3)
	School health teacher Public health center	6(2.8) 2(0.9)

3.2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는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46±0.62점이었고, 개인적 전공선택동기는 3.47±0.84점, 사회적 전공선택동기는 3.45±0.89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4.04±0.56점이었고, 전공만족도 중 하위영역인 인식만족 4.40±0.52점, 관계·교과만족 3.88±0.72점, 일반만족은 3.89±0.78점으로 나타났다. 간호경력몰입은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3.11±0.6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와 간호학에 대한 태도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생활에 만족한 군은 불만족한 군보다 전공선택동기(F=5.42, p<.005)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F=30.26, p<.001)가 높았으며, 간호경력몰입(F=8.37, p<.001)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에 만족한 군이 불만족한 군보다 전공만족도(F=17.29, p<.001)와 간호경력몰입(F=10.02, p<.001)

Table 2. Degree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career commitment of senior nursing students

(N=215)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Skewness	Kurtosis
Motive for major selection	3.46±0.62	1.71	5.00	1-5	.22	.29
Personal motivation	3.47±0.84	1.25	5.00	1-5	-.16	-.56
Social motivation	3.45±0.89	1.00	5.00	1-5	-.36	-.25
Major satisfaction	4.04±0.56	2.12	5.00	1-5	-.39	.01
Satisfaction in social perception	4.40±0.52	2.17	5.00	1-5	-.78	.84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and curriculum	3.88±0.72	1.50	5.00	1-5	-.36	-.13
General satisfaction	3.89±0.78	1.00	5.00	1-5	-.57	.15
Nursing career commitment	3.11±0.69	1.38	4.75	1-5	.16	-.08

Table 3. Motive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career commitm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otive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career commitment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Gender	Female	3.50±0.60	.03(.712)		4.13±0.58	.28(.314)		3.25±0.81	1.29(.448)	
	Male	3.46±0.60			4.03±0.54			3.16±0.66		
Satisfaction in campus-life	Satisfied ^a	3.57±0.60	5.42(.005)	c/a	4.26±0.45	30.26(<.001)	c<b/a	3.32±0.67	8.37(<.001)	c/a
	Moderate ^b	3.35±0.49			3.81±0.50			3.01±0.64		
	Dissatisfied ^c	3.18±0.93			3.51±0.67			2.79±0.73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a	3.55±0.60	2.43(.090)		4.24±0.44	17.29(<.001)	c/a	3.36±0.63	10.02(<.001)	c/a
	Moderate ^b	3.38±0.60			3.88±0.58			3.02±0.68		
	Dissatisfied ^c	3.32±0.71			3.61±0.62			2.71±0.75		
Attitude toward nursing science	Positive ^a	3.58±0.57	16.94(<.001)	c<b,a	4.21±0.45	37.76(<.001)	c<b/a	3.33±0.66	20.27(<.001)	c<b/a
	Moderate ^b	3.27±0.59			3.66±0.55			2.85±0.54		
	Negative ^c	2.64±0.48			3.28±0.50			2.31±0.59		
Grade point average	Upper ^a	3.41±0.55	8.85(<.001)	c<b	4.18±0.48	4.69(.010)	c/a	3.28±0.75	2.32(.101)	
	Middle ^b	3.57±0.55			4.07±0.52			3.20±0.66		
	Lower ^c	3.12±0.76			3.81±0.66			2.96±0.69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a	3.54±0.59	4.40(.013)	c<b,a	4.18±0.54	7.97(<.001)	c<b,a	3.14±0.61	.09(.911)	
	Good ^b	3.49±0.64			4.05±0.56			3.18±0.73		
	Moderate ^c	3.17±0.50			3.72±0.43			3.20±0.71		
Difficulties in nursing studies	Curriculum	3.45±0.62	.35(.787)		4.14±0.49	.17(.913)		3.13±0.79	.07(.972)	
	Clinical practice	3.54±0.59			4.03±0.57			3.17±0.67		
	Relationship with peer	3.51±0.62			4.05±0.49			3.18±0.76		
	Others	3.32±0.66			4.10±0.55			3.28±0.63		
A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Hospital nurse	3.52±0.62	1.90(.095)		4.07±0.54	1.80(.114)		3.32±0.69	1.42(.217)	
	Public service personnel	3.20±0.40			3.87±0.51			2.80±0.51		
	Occupational health nurse	3.32±0.40			4.02±0.33			3.11±0.37		
	School health teacher	3.38±0.41			4.02±0.20			3.25±0.70		
	Public health center	3.21±0.70			4.48±0.67			3.06±0.45		
	Others	3.04±0.01			3.68±0.94			3.39±0.20		

이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간호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군은 부정적인 군보다 전공선택동기(F=16.94, $p<.001$)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간호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도(F=37.76, $p<.001$)와 간호경력몰입(F=20.27, $p<.001$)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성적 중위권 군이 하위권 군보다 전공선택동기(F=8.85, $p<.001$)가 긍정적이었고, 평균성적 상위권 군이 하위권군보다 전공만족도(F=4.69, $p=.010$)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정도가 좋음 이상인 군이 보통인 군보다 전공선택동기(F=4.40, $p=.013$)와 전공만족도(F=7.97, $p<.001$)가 높게 분석되었

다(Table 3).

3.4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은 전공선택동기($r=.41$, $p<.001$) 및 전공만족도($r=.35$, $p<.001$)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3.5 간호경력몰입 영향요인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Table 4. Correlations among motive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career commitment (N=215)

Variables	Motive for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career commitment
	r(p)		
Motive for major selection	1		
Major satisfaction	.52(<.001)	1	
Nursing career commitment	.41(<.001)	.35(<.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career commitment

(N=215)

Variables	Nursing career commitment							
	B	SE	β	t	p	R ²	Adj R ²	F(p)
(Constant)	2.20	.44		9.7	<.001	.417	.394	18.40 (<.001)
Personal motivation	.44	.05	.53	8.18	<.001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16	.07	-.14	-2.16	.032			
Social motivation	-.09	.04	-.12	-2.07	.039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첫째, P-P 도표를 확인하여 오차항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정규분포를 보였다. 둘째, 오차항의 정규성 오차 간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값을 검토한 결과, 1.951로 2 안팎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390-.999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01-2.566으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회귀분석은 일반적 특성 중 간호경력몰입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교생활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학에 대한 태도를 투입하였고, 상관분석 결과 간호경력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을 투입하여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전공선택동기($\beta=.53, p<.001$), 임상실습 만족도($\beta=-.14, p=.032$), 사회적 전공선택동기($\beta=-.12, p=.039$)였고,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39.4%로 나타났다($F=18.40, p<.001$)(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의 관계를 확인하고,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경력몰입 형성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은 3.11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중소병원 간호사(2.78점)[25], 종합병원 일반병동 간호사(2.77점)[26],

경력단절 간호사(2.64점)[7]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간호경력몰입이 간호대학생에서 간호사로 전환되어 사회화될수록 저하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의 경력관리는 간호사 개인의 생애계획의 일부로서, 부단한 자기점검과 자기평가가 필요하며 간호경력몰입의 형성은 대학 졸업 후 간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 일할 때가 아닌, 간호 전공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한 지속적, 체계적인 과정이 요구된다[4].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을 체계적으로 구축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간호대학생은 본인의 전공선택동기를 바탕으로 평생 간호사로서의 간호전문직 경력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대학은 간호이론 및 술기와 더불어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바탕으로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경력개발에 대한 이해와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한 신규간호사의 이직 및 탈 임상화가 심각한 사회문재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임상현장에서도 간호사의 효과적인 간호경력몰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한 요인들은 개인적 전공선택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사회적 전공선택동기였고, 이들의 설명력은 39.4%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전공선택동기였고,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모두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는 3.46점으로, 선행연구[27]의 3.74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개인적 전공선택동기는 3.47점, 사회적 전공선택동기는 3.45점이었고,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3.94점, 3.53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인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낮았다. 그러나 임민숙·이상민의 연구[28]에서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는 전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나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실제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부모님 혹은 주변 사람의 권유나 취업전망,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등의 사회적 동기를 이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있으나[9, 29] 사회적 동기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개인적 동기로 입학한 학생보다 자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과거에는 개인적 동기가 사회적 동기보다 학습능력 향상의 강화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사회적 동기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목표 성취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전공선택동기와 사회적 전공선택동기 모두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의 중요 개념으로 확인되었다[30].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개인적 전공선택동기와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간호경력몰입의 중요요소로 확인되었기에,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전공선택동기와 사회적 전공선택동기는 모두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중·고등학생은 스스로의 적성과 자질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확보하여 학생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고등학생이 전공선택동기를 탐색하는 경우,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에 대하여 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전공선택동기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대학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과 교육과정과 다양한 간호진로 등을 소개하는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간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개인적 전공선택동기와 사회적 전공선택동기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여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간호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간호대학은 신입생 확보 및 우수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전공만족도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는 4.04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3.91점[27], 3.83점[31]에 비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진로를 확보한 상태로 학과에 입학하고, 취업률이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전공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대상자의 특성에 의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인식만족이 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교과만족이 3.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31]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개인적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의 영향이 더 큰

선행연구[9, 29]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본인의 애착과 자기만족보다는 간호사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인 인식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임상실습으로 운영되는 간호교육과정에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수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도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간호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거나 성적 및 대인관계정도가 좋은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12, 14]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14], 간호대학생의 전공불만족은 졸업 후 신입 간호사의 올바른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가 되며, 전공불만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간호의 질 저하는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기반 약화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3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대학 졸업 후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일하게 될 때, 평생 자신의 직업에 대해 애착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간호경력몰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생들이 학습자로서 실습내용, 지도, 환경, 시간 등 실습관련 다양한 영역을 경험한 반응이며, 교육자에게는 실습교육 개선을 위한 중요한 평가지표이다[33].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간호 전문직 정체성과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상실습 교육은 이론과 실무 간의 연계성, 간호술기의 습득기회 및 실습 지도교수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은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35]. 그러므로 대학은 간호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적합한 임상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이론과 실무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장실무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까지 간호 분야의 경력몰입에 관한 연구들은 문헌 연구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경력몰입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도 간호사 개인특성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 선행변수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 지지 않았던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와 간호경력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경력몰입이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에게 적용가능한 개념이며 경력몰입형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직에 대한 자기확신과 자기만족은 졸업 이후 임상에서의 간호업무수행 및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36]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경력몰입 형성과 지속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가 될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경력몰입을 형성함으로써 자신과 직업에 만족하고, 지속적인 간호직의 유지와 간호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경력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개인적 전공선택동기, 임상실습만족도,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간호경력몰입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39.4%로 나타났다. 연구의 의의는 간호인력관리의 중요개념인 간호경력몰입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여 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높은 요인들을 확인한 것이며, 연구의 제한점은 한 지역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고, 연구도구 중 사회적 전공선택동기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간호경력몰입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간호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경력몰입의 예측요인을 더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R. H. Hall. (1968).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92-104.
- [2] G. J. Blau. (1985). The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8(4), 277-288.
- [3] M. Y. Lee & S. B. Im. (2012). Structural Model of Nurses'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8(3), 341-353. DOI : 10.22650/JKCN.2012.18.3.341
- [4] I. O. Moon. (2010). The Structural Model about Impact of Nurse's Career Management, Career Plateau, Career Satisfaction on Career Commitm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2), 180-189. DOI : 10.11111/jkana.2010.16.2.180
- [5] D. L. Gardner. (1992). Career commitment in nursing.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8(3), 155-160. DOI : 10.1016/8755-7223(92)90025-t
- [6] H. J. Choi. (201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Career Satisfaction, Career Commitment and Career Withdrawal Intent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2), 236-245. DOI : 10.22650/jkcnr.2014.20.2.236
- [7] J. Y. Yoo. (2020).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intent of return to nursing practice among Korean inactive nurs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8] Y. M. Jung. (2019).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Tourism.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3(6), 717-738. DOI : 10.18604/tmro.2019.23.6.31
- [9] Y. J. Kim, H. N. Yoo & M. J. Park. (2016).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61-270. DOI : 10.5762/KAIS.2016.17.10.261

- [10] Y. J. Han.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 [11]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12] M. Y. Kim. (2010). Experience of Belongingness at Apprentice Course for Advanced Practice Nurse: Learning-connected Proces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2(4)*, 395-407.
- [13]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1.27
- [14] K. E. Lee & I. S. Seo. (2022).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1)*, 37-47.
DOI : 10.5977/jkasne.2022.28.1.37
- [15]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DOI : 10.5762/KAIS.2014.15.5.2937
- [16] Y. S. Kang & S. K. Hwang. (2013).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301- 3309.
DOI : 10.5762/KAIS.2013.14.7.3301
- [17] B. W. Seo. (2013).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al choice factor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3(2)*, 65-81.
- [18] D. Barron, E. West & R. Reeves. (2007).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12(1)*, 46-51.
DOI : 10.1258/135581907780318419
- [19] Y. H. Han, H. Y. Kim, J. A. Ko & E. J. Kim. (2018).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s of Clinical Ladder System, Career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4(1)*, 67-73.
DOI : 10.22650/JKCN.2018.24.1.67
- [20] S. J. Han. (2010).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ir Career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 Moderating Role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7)*, 418-425.
DOI : 10.5392/JKCA.2011.11.7.418
- [21] G. J. Blau. (1988).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3)*, 284-297. DOI : 10.1016/0001-8791(88)90020-6
- [22] D. L. Gardner. (1991). Assessing career commitment. The role of staff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7(6)*, 263-267.
DOI : 10.15207/JKCS.2020.11.5.341
- [23] J. Y. So & Y. J. Ha. (2020). Converged Influencing Factors on the Career Commitment of General Hospital Nurse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5)*, 341-351.
DOI : 10.15207/JKCS.2020.11.5.341
- [24] B. Y. Jeong. (2010).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 [25] K. N. Kang. (2012).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medium sized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8(2)*, 155-165.
DOI : 10.11111/jkana.2012.18.2.155
- [26] M. R. Kim. (2007). Influential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 The Affect of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Commitment to Turnover Intenti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3)*, 335-344.

- [27] S. H. Shin, S. H. Shin, Y. J. Kim & S. Y. Lee. (2021).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Major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3), 203-213. DOI : 10.17703/JCCT.2021.7.3.203
- [28] M. S. Im & S. M. Lee. (2020).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s, Self-efficacy, and Motives for Major Selec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71-84. DOI : 10.22143/HSS21.11.5.6
- [29] H. J. Shin & H. J. Park. (2017).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2), 643-664. DOI : 10.22251/jlcci.2017.17.22.643
- [30] R. M. Ryan & E. L. Deci.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DOI : 10.1006/ceps.1999.1020
- [31] Y. J. Lee & Y. S. Kim. (2017).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Autonomy, and Career Search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4), 474-485. DOI : 10.5977/jkasne.2017.23.4.474
- [32] M. Y. Han, Y. S. Kim, M. K. Jeon & I. J.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Crisisonomy*, 12(6), 53-65. DOI : 10.14251/crisisonomy.2016.12.6.53
- [33] S. H. Kim. (2017). Influence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2), 163-182. DOI : 10.22251/jlcci.2017.17.12.163
- [34] C. Wu, M. H. Palmer & K. Sha. (2020). Professional identity and its influencing factors of first-year post-associate degre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84, 104227. DOI : 10.1016/j.nedt.2019.104227
- [35] E. S. Lee, J. S. Kim & A. Y. Kim. (2011). Effects of Clinical Practicum Reinforcement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the ICU.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7(2), 262-274. DOI : 10.22650/JKCN.2011.17.2.12
- [36] M. S. Yoon & S. Y. Yim. (2018). A Study of Convergence Social Voluntary Service Activity and Sense of Profession Values, Self-Esteem, Socia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1), 562-570. DOI : 10.5392/jkca.2018.18.11.562

유 지 연(Ji-Yeon Yoo)

[정회원]



- 200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1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2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1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의료의 질, 건강증진
- E-Mail : yjy@hit.ac.kr